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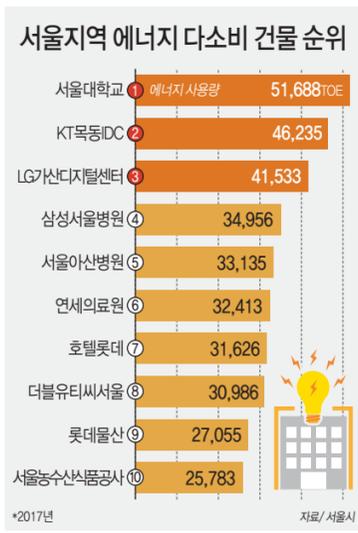
서울대, 에너지 사용량 6년연속 1위 '불명예'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시행 가정용 전기사용량은 2% 감소 KT목동IDC 2위·가산IDC 3위

기록적인 폭염과 전력 사용량이 급증한 가운데, 서울시내 대형건물들의 에너지 소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대학교는 6년 연속 에너지 사용량 1위를 차지했다.

5일 서울시가 발표한 대학교·병원·백화점·상용건물 등 '서울시내 대형건물 에너지 소비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에너지 다소비건물 총 333곳 중 약 3분의 1인 112곳이 전년 대비 에너지사용량이 증가했다.

시에 따르면, 이 기간 가정용 전기사용량은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정책 시행으로 2% 감소한 반면 에너지다소비건물의 전기사용량은 18.1% 늘어났다. '에너지



지다소비건물'은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인 건물로, 2016년말 기준 전국에 4578곳이 있으며

이곳에서 국가 전체 에너지사용의 72.9%를 차지하고 있다.

공동주택을 제외한 서울지역 에너지다소비건물의 지난해 에너지 사용량 순위도 공개됐다. 이 중 에너지 최다사용시설은 서울대학교(5만1688TOE)로 나타났다. 2위는 KT목동IDC(4만6235TOE), 3위는 LG가산디지털센터(가산IDC, 4만1533TOE), 4위 삼성서울병원(3만4956TOE), 5위는 서울아산병원(3만3135TOE) 순이었다. 특히, 서울대학교는 2012년 이후 6년 연속 서울 지역에서 에너지이용이 가장 많은 시설로 조사됐다. 시는 "서울대학교가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력피크관리를 하고 고효율설비로 교체하는 등 에너지 절감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전년 대비 에너지사용량은 4469TOE나 증가하는 등 해마다 사용량 1위의 불명예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24시간 운영되는 데이터센터들이 단위

면적당 에너지사용이 많았으며 최다사용 시설은 KT목동IDC, 2위는 LG U+ 서초IDC센터, 3위는 LG U+ 논현 IDC, 4위는 LG가산디지털센터(가산IDC), 5위는 SK Telecom(성수동 사옥)다. 전년 대비 에너지사용량이 증가한 상위 3곳은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서울대학교, 롯데물산(주)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용량이 증가한 사유로는 증축 및 신축건물 준공에 따른 입주율 상승, 이용객 증가, 신규 설비 도입 등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에너지 사용량이 감소된 건물은 (주)엘지씨엔에스 상암 IT센터, 주식회사 패션티브이관리, (주)LG유플러스 논현IDC 순이다. 주요 절감사유는 설비 이전, 인버터 방식 전산장비 전력제어 도입, 고효율 냉방장치 설치·운영, 냉방설비 대온도차 제어, LED조명 교체 등 건물 특성에 맞게 에너지 절약을 추진한데 따른 결과다.

서울지역 에너지다소비건물의 숫자도

지난 5년 새 271곳(2012년)에서 333곳(2017년)으로 22.8% 증가했다. 이들의 에너지사용량도 같은 기간 167만7000TOE에서 193만3000TOE로 15.3% 증가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박사는 "현재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이 실종된 상태"라고 진단하면서 "그 원인은 정부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관리·감독 부실에 있다"고 꼬집었다. 이 박사는 또 "서울시가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관리 의지가 높은 반면 권한이 없다. 수요관리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충완 경기대학교 교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수와 에너지사용량이 매년 증가하는 원인과 현황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관리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metroseoul.co.kr

온열질환 시민 등에 생계비 최대 100만원

서울시, 임시·일용직 일자리 줄어 주거 취약가구에 선풍기 등 제공

서울시는 폭염으로 생존 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체감온도가 40도를 넘는 최악의 폭염으로 여름철 생계비 지출이 늘어나는데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줄어들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긴급복지 대책이다.

시는 우선 폭염으로 인한 사업장의 휴·

폐업으로 실직한 일용직 근로자 등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3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생계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85% 이하(4인 가구 384만원 이하), 재산 1억89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의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이다. 사안이 긴급한 경우에는 동주민센터나 구청의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 가능하다.

주거취약가구(옥탑방·쪽방·반지하·고시원), 고독사 위험 1인 가구, 폐지수집 어르신에게는 선풍기·쿨매트·소형냉장고

등의 생필품을 제공한다.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일사·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긴급 의료비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냉방비, 전기요금 등 기타 명목으로 최대 100만원의 공과금 지원이 가능하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주변에 폭염으로 인해 실직하거나 온열 질환 등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다산콜센터로 알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

'사회적약자 배려사업' 시민투표 진행

서울시, 450억 규모사업 결정

이 모씨는 주변 놀이터가 비장애아동 위주로 조성돼 장애아동이 놀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점을 착안, 공원에 놀이터에 장애아동의 접근을 보장하고 장애아동이 비장애아동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무장애 놀이공간을 조성하는 아이디어를 냈다. 그가 제안한 사업은 '어울림 놀이공간! 세상 모든 어린이가 하나 되는 꿈쟁이놀이터 변신' (5억원)이다.

이 같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업들이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민관예산협의회의 속의 심사를 거쳐, 시민투표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됐고 시민들의 최종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심사하고 선정하기 위한 '2019 시민참여예산사업 시민투표'를 6일부터 시작한다. 총 선정규모는 655억원으로 오는 9월 1일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에서 결정된다. 투표 대상은 서울시 사업부서 검토

와 시민참여예산위원회 현장확인을 통해 선정된 148건 사업, 552억8000만원 규모로 투표결과에 따라 최종 450억원 규모가 결정된다.

투표는 일반시민 및 제안자, 예산학교 회원은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나 서울시 '엠보팅' 앱을 사용해 참여할 수 있고, 참여예산위원회는 총회 당일 현장에 설치된 PC를 이용하면 된다. 일상생활 속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 10개를 선택하면 된다. 일반시민(50%), 제안자(10%), 시민참여예산위원(30%), 예산학교 회원(10%)의 투표를 합산한 결과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이 선정된다.

시는 올해 처음 25개 자치구에 현장투표소를 운영, 서울시청 본관 1층에는 2019년 시민참여예산 투표대상사업을 상시 전시하고 있다. 오는 9월 1일 개최되는 한마당 총회에서는 2019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최종 선정과 더불어 문화행사 및 이벤트, 시민참여예산 우수사업 경진대회, 토크콘서트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진희 기자

폭염에 자동차 안전·편의용품 불티

기온 1℃ 오르면 교통사고 1.2% ↑ 삼각대·경광봉 등 매출 331% 급증

기록적 폭염이 이어지면서 자동차 고장과 교통사고가 늘고 있다. 이에 자동차 안전 및 편의용품 매출이 급증했다.

5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16년부터 최근 3년간 여름철 발생한 교통사고 186만6083건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기온이 1℃ 오를 때마다 교통사고 접수건수는 평균 1.2%씩(약 80건) 증가했다. 23℃에서는 6958건이었던 사고가 30℃에는 7540건, 33℃에는 7804건으로 늘어난 것이다.

8월의 계절적 특성이 교통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차량 전문가들은 열대야와 폭염으로 잠을 설치 운전자들의 집중력 저하를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지적함과 동시에 여름 폭염에 더위 먹은 차량 그 자체도 화재 사고 가능성의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여름 휴가철을 맞은 소비자들이 자동차 안전 및 편의용품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써머스플랫폼이 운영하는 가격비교 사이트 '에너지가격비교'에 따르면 연일 내리치는 강한 햇빛 탓에 올 7월 차량용 햇빛가리개 판매 수량이 전년 동월과 비교해 152% 크게 상승했고, 매출도 75% 증

가했다. 또한 고온 다습한 날씨로 엔진과열과 전기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이를 대비한 차량용 소화기 7월 매출도 지난해 7월과 비교해 55% 상승했다.

특히 차량용 소화기는 최근 연이은 차량 화재 사고로 운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매출이 크게 증가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여름 휴가를 위한 장거리 운동 시 사고를 대비해 차량에 필수로 구비해둬야 하는 삼각대나 경광봉 등 안전용품도 7월 매출이 전년 대비 331% 증가했으며, 지난해 7월 매출과 비교해도 240% 상승했다. 뿐만 아니라 휴가지 또는 여행으로 오래 집을 비울 때 차량 도난방지를 위한 스마트키와 경보기 등 판매 수량도 전년 7월 대비 143% 급증했다.

에너지 가격비교 담당자는 "여름철에는 차량 전반적으로 안전 점검을 하는 게 중요하고,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한 용품들도 차량에 미리 구비해두는 것을 권한다"라며 "특히 올해처럼 햇빛이 강한 고온 날씨가 이어지면 차량 화재 가능성도 높아 안전용품은 물론 라이더나 스프레이 등 인화성 물질을 차량 내부에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 가격비교는 무더운 여름 자동차 필수품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방문간호사 활동 모습. /서울시

사회보장계획 시행평가 서울시 대상 수상

서울시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7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복지급여법에 의해 각 자치단체에서 매년 수립하는 계획이다. 지역의 특성에 맞게 사회복지사업계획을 시행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 수립 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는 시민복지기준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 주민 참여형 복지정책을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시민복지기준선'을 통해 누구나 최저생활이 보장된 적정 수준의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을 실시해왔다.

아울러 시는 행정 중심이었던 동주민센터를 복지 중심으로 개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추진해왔다.

/김현정 기자



보신각종 타종 후 종을 만지며 합격을 기원하는 모습. /서울시

'수능D-100' 내일 합격기원 보신각 타종

서울 종로구 관철동 보신각에서 수험생 력시험을 100일 앞둔 수험생의 대학 합격을 기원하는 타종행사가 열린다. 서울시는 오는 7일 보신각에서 '제7회 대학합격기원 타종행사'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타종행사는 ▲합격기원 소원지 작성 ▲사물놀이 공연 관람 ▲희망의 끈에 합격기원 소원지 묶기 ▲문화유산 해설 청취 ▲보신각종 타종 체험 순으로 진행된다.

수험생의 합격기원 소원지는 행사종료 이후 소원함에 넣어 수능시험 당일까지

보신각에 보관될 예정이다. 타종 참여자는 보신각종을 타종하고, 종을 만지며 합격을 기원한다. 행사 참여 희망자는 7일 오전 11시 30분까지 보신각으로 오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영준 서울시 역사문화재과장은 "올해 7회를 맞이하는 '대학합격기원 타종행사'에 수험생과 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